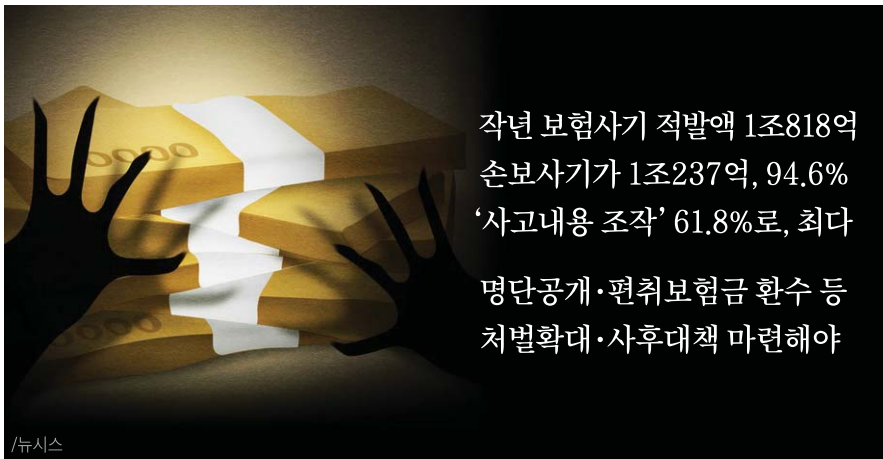


진화하는 보험사기, 처벌법은 제자리… “실효성 방안 마련을”

지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1년 새 138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손해보험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고, 생명보험업계는 2021년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사기에는 주로 손해보험 상품이 많았다. 전체 적발 금액 중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 적발 금액은 1조237억원 규모다. 전체 금액의 94.6%를 차지했다.



반면 생명보험의 경우 581억원으로 전체의 5.4%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사기를 통해 수령하는 금액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수법이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도화되고 있는 것.

지난해 생명보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6301명으로 2021년(7812명) 대비 줄었다. 적발인원은 19.3% 줄었지만 액수

는 4.7% 증가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지난해 9만6378명으로 2021년(8만9817명) 대비 7.3% 증가했다. 보험사기 액수도 15.2%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은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등 ‘사고 내용 조작’이 가장 많이 활용됐다. 전체 유형 중 61.8%를 차지했다. 이어 질병, 상해 사고 위장 등을 통한 ‘허위사고’가

17.7%로 뒤를 이었다. 고의 총돌, 자기 재산손괴 등 ‘고의사고’가 14.4%로 집계됐다.

정부와 보험사는 해마다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보험사기 신고 접수 및 적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매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보험사기 예방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매년 업계별로 ‘보험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이 누수돼 손해율이 상승하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 처벌 범위 확대와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보험사기업

자 명단공개 ▲편취한 보험금 환수 ▲조사기관의 자료요청 권한 부여 등이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험금이 불법으로 지급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불법으로 편취한 보험금 또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환수권의 경우 별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자료제공 요청권이나 보험사기 알선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 등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중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KB·하나금융 長 출국… 해외영토 확장 사활

이복현 금감원장도 출국길 동행 싱가포르·인니서 기관투자자에 IR

국내 금융사가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낸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이달부터 해외 기업설명회(IR)에 참여해 해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례적으로 금융권 해외 IR에 동행해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도모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함께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이번 출장길에는 빠졌다.

특히 금감원장의 동행은 그동안 금융권 해외 IR에 동참한 경우가 없어 이례적이라는 평가 나온다.

이 원장의 이번 금융회사 CEO 해외 출장길 동행은 금감원이 올해 주

요 업무 추진방향 중 하나로 밝힌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의 일환이다.

지난해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간 그룹 순이익 가운데 해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나 19.5% ▲우리 14.3% ▲신한 12.2% ▲KB 11% ▲농협 1%에 그쳤다. 이 비중은 30~40%가 넘는 해외 금융사들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해외 사업의 부진은 국내 금융사의 필수 해결 과제다. 해외사업 확장은 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기 때문. 최근 주 수익원인 대출 점유율 감소로 예대마진이 크게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사업은 외화대출과 비이자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금융회사 해외 진출 적극 지원’을 설정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

스(TF)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 성과를 위해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과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일제히 글로벌 진출 확대를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삼았다. 해외 기업설명회(IR)와 AD B 연차총회 등을 통해 해외 사업 확장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신한지주는 진옥동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해외 투자자 미팅(IR)을 진행했다. 진 회장은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신한은행의 현지법인인 SBJ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신한 퓨처스랩 재팬’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원장은 현지 IR에 참석해 한국 금융사의 해외 진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왼쪽 세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몽골 칸은행, 디지털금융 맞손

‘디지로그 브랜치’ 등 혁신사례 체험

신한은행이 몽골 칸은행과 손을 잡았다. 신한은행은 몽골 최대 은행 칸은행(Khan Bank)과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칸은행은 1991년 출범했다. 몽골 전 지역에 540여 개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몽골 전체 인구의 약 80%가 이용하는 상업은행이다.

최근 칸은행은 디지털을 기반으로 은행의 혁신을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을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신한은행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주요 경영진 및 이사회가 신한은행을 방문했다. 미래형 점포 모델 ‘디지로그 브랜치’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혁신 사례를 체험했다. 지난 4월 칸은행은 이를 벤치마킹한 셀프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특화 점포 ‘디지고(Digi-Go)’를 몽골 현지에 신설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 중심 기반의 디지털 혁신 서비스 및 전략 공유 ▲온·오프라인 채널 간 유기적인 고객경험 설계 지원 ▲금융 시스템과 연계한 혁신적 디지털 인프라 구축 자문 등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산 기자

금감원, 금융산업·이슈 등 이해 돕는다

18일부터 ‘FSS 금융아카데미’ 개강 첫 강연자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및 주요 금융이슈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FSS 금융아카데미의 일반과정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바람직한 주식투자, 가상자산, 외환시장의 이해, 금융범죄 피해 예방, 서민금융지원제도 등 청년세대의 금융생활을 돕는 주제로 강좌가 개설된다.

올해 첫 일반과정 강좌는 ‘금감원장과 MZ세대가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18일 오후 3시 금감원에서 진행된다.

이 강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김동환 이브로드캐스팅 대표가 참석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아래 신뢰받는 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일반인 또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200명의 접수를 받는다.



“FSS 금융아카데미는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일반과정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회당 2시간)씩, ‘심화과정’은 8월 이틀 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심화과정은 일반과정 수료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석자를 선발해 금융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중심으로 강좌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와 함께 금융감독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하나銀, 도소매업자와 상생 ‘이자 캐시백’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

하나은행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도소매업자와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도소매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었던 도소매업자들이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사업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

안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장님 희망드림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도소매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00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매월 대출 이자를 정상 납부 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도소매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누어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캐시백 받게 된다.

/구남영 기자